

제 목	국 문	의사들의 비만 양상: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트레스 및 생활습관과 연관한 분석연구		
	영 문	Doctors' obesity: analysis correlates with diet intake, physical activity, stress, and life style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영실*, 박혜숙 [†] , 조봉수, 김영욱, 고팡욱, 강수용, 조병만, 이수일, 김돈균 부산의대 예방의학교실, 부산대학교 보육정보센터 [†]		
	영 문	Kim Young Sil*, Park Hye Sook [†] , Cho Bong Soo, Kim Young Wook, Koh Kwang Wook, Kang Soo Young, Cho Byung Mann, Lee Su Ill, Kim Don Kyoun <i>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Educare Information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예방의학(역학)	발 표 자	김영실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 목적</p> <p>만약 비만을 질환의 범주에 넣는다면, 현대인의 심각한 숙제인 비만은 가장 큰 유행률을 가진 가장 흔한 질환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비만의 위험요인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비만과 연관하여 예상되는 모든 위험인들을 통합하여 조사 분석한 연구는 드물었다.</p> <p>저자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체형체격을 측정하고, 식이섭취, 신체활동,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을 망라한, 비만의 거의 모든 주요한 위험요인들을 조사하여, 의사들의 비만 양상을 의사 집단의 특이적 구조와 연관하여 파악·제시하고, 이러한 요인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주된 위험요인을 규명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p> <p>2. 연구 방법</p> <p>조사 대상은 총 508명으로 남자 396명, 여자 112명 이었다. 근무형태에 따라 1) 전공의및수련의, 2)봉직의, 3)개업의로 구분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1)외과계, 2)내과계, 3)서비스및기초의학계로 구분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부산 및 경남 일원에서 활동하는 의사가 대부분이었고, 조사활동은 1995년 9월부터 1996년 8월까지 약 12개월간 시행하였다.</p> <p>1) 비만 계측 및 산출</p> <p>BMI(Body Mass Index, 체중량지수), WHR(Waist Hip Ratio, 허리엉덩이비), RW(Relative Weight, 비교체중)를 산출</p>				

2) 식이섭취량 계측 및 산출

24 hour recall diary를 토대로 식품영양가표(한국영양학회, 1995)에 의거하여 평균식이섭취량(kcal/day)을 산출

3) 신체활동량 계측 및 산출

24 hour recall diary를 토대로, Energy Cost of Various Activity(Churchill Livingstone, 1978)에 의거하여 평균신체활동량(METs/day)를 산출

4) 스트레스 계측 및 산출

PWI-45 (Pyscosocial Well-being Index)에 의거 산출

5) 생활습관 및 기타 자료

주·간식 습관과 식사 규칙성 여부와 흡연·음주 습관 그리고 의학적 과거력 및 가족적 비만력 그리고 여자인 경우 출산력 등을 포함

3. 연구결과

- 1) 의사 집단의 비만 정도를 살펴보면 BMI=23.1±2.8, WHR=0.87±0.08, RW=107±14 이고, 체중과다율(>BMI 25.0)은 23.6 %이었다. 이 모두는 한국인의 평균치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나, 정상범위 안에는 들어 있었다.
- 2) 비만의 정도(BMI와 prevalence)를 살펴보면, (1) 전문과목에 따라서는 외과계, 내과계, 서비스및기초의학계 순으로, (2)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개업의, 봉직의, 전공의및수련의 순으로, (3) 연령별로는 60대, 50대, 40대는 동일한 정도로, 그 뒤를 이어 30대, 그 다음이 20대 순으로, (4) 성별로는 남자, 여자 순으로 비만의 정도가 심하였다. 그리고 이 모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 3) 의사들의 평균식이섭취량은 2042±451 kcal/day이고, 평균신체활동량은 29±5 METs/day이고, 스트레스는 32±15 PWI score 이었다.
- 4) (1) 식이섭취량은 전문과목에 따라 외과계, 내과계, 서비스및기초의학계 순으로,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개업의, 봉직의, 전공의및수련의 순으로 많았다(p<0.01). (2) 신체활동량은 전문과목에 따라서는, 근무형태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 (3) 스트레스는 전문과목에 따라 외과계, 내과계, 서비스및기초의학계 순으로,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전공의및수련의, 봉직의, 개업의 순으로 많았다(p<0.05).
- 5) 비만한 의사군(>BMI 25.0)과 정상인 의사군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평균식이섭취량, 아침식사여부, 규칙적인운동여부, 흡연여부, 과음여부, 비만가족력, 만성질환유무 등이었으며(p<0.05), 신체활동량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식이섭취량 중에서도 특히 주류와 고기 섭취량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4. 고찰

의사를 대상으로한 최초의 비만에 관한 연구이며, 체형체격, 식이섭취량, 신체활동량, 스트레스 및 각종 비만 관련 생활습관을 실제로 계측하고 산출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본 초록은 일차로 분석한 508례의 데이터이며, 추후 가까운 시간에 1000례 이상의 보다 안정된 데이터를 제시하고자한다.